

태광그룹 지배구조 개선·경영승계 마무리단계

티시스·태광관광 합병... 3세 이현준 전면 부상

총 계열사 수 26개 → 22개로 줄여
출자구조 단순화·투명화 마무리
인적분할로 오너 3세 입지 다져

태광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체 계열사 수를 26개에서 22개로 줄이고,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보유했던 계열사도 합병, 증여 등의 방식으로 출자구조를 단순화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오너 3세인 이현준 씨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태광그룹은 계열사인 티시스와 태광관광개발의 합병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병이 마무리 되면 최근 2년여에 걸친 출자구조의 단순·투명화 작업은 사실상 끝난다.

그간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과 그의 아들 현준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로 인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이에 이 전 회장은 2016년 12월 세광패션 지분을 태광산업에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와인 유통업체 메르벵 지분 전체를 태광관광개발에 무상 증

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티시스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뒤 투자 부문은 한국도서보급과 합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티시스는 그룹 내 IT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체로, 계열사에 IT 서비스를 제공해 일감 몰아주기의 논란의 대상이 된 기업이다.

티시스는 이 전 회장이 지분 51.01%, 아들 이현준 씨가 44.62%, 아내 신유나 씨가 2.18%, 딸 이현나 씨가 2.18%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티시스는 티브로드와 흥국생명보험 등에 IT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전체 매출 70%가량인 약 2400억원을 그룹 계열사를 통해 올리면서, 일감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공정거래법상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가 연 200억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된다.

티시스의 인적분할을 통해 오너 일가 지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또 이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티시스의 개

인 지분도 태광산업과 세화여중·고를 운영하고 있는 일주세화학원에 무상으로 증여키로 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에서는 자유롭게 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지분 처분이 사실상 그룹 내부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티시스 지분의 무상 증여하게 되는 태광산업에 대한 이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여전히 43% 수준인 점으로 감안할 때, 배당 등을 통해 오너 일가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을 해소하고 동시에 공격적 목적도 고려한 것"이라며 "완료된 이후에도 소액주주의 권리보장, 윤리경영시스템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현준 씨의 그룹 내 입지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현준 씨는 2005년 한국도서보급 지분을 45% 사들였으며 이듬해 49%까지 지분을

늘렸다. 2006년에는 티시스와 티알엠의 지분을 각각 49% 매입했다.

티시스와 티알엠은 2010년 태광산업의 지분을 11.2% 보유했으며 이후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현준씨는 태광산업 2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티시스와 한국도서보급이 합병된 이후 현준씨는 합병 티시스 지분 약 4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태광그룹의 승계 작업도 거의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특히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2012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후 7년째 비상경영에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짜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준 씨가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사실상 승계 기틀은 마련된 상황"이라며 "현준 씨가 20대 중반에 불과해 당장 경영에 나서기 보다 경영 수업을 쌓는 등 차근차근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tcindun@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IVI 전문가 獨 박사 영입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하며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모비스는 독일 콘티넨탈 출신의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칼스텐 바이스 박사(사진)를 IVI(차량내 인포테인먼트)-SW 개발 담당 상무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자율주행과 램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레고리 바라토프 박사와 미르코 고에츠 박사를 영입한 바 있다. 이번 바이스 상무 영입은 현대모비스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한 R&D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자, 현대글로벌비스와 분할 합병 이후 존속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스 상무는 독일 카이저슈라우테른 공과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뒤 2001년부터 일본 알파인 등에서 BMW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제품 개발 및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



이후 2012년부터 콘티넨탈에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및 기술·제품 로드맵 수립, 제품 개발을 총괄했다. 또 자동차 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콘티넨탈의 사이버 보안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인포테인먼트는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와 긴급 구난 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스마트폰의 각종 정보와 콘텐츠를 차량에 장착된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으로 이용하는 미러링 서비스 등으로 대표된다.

이런 기능을 통해 커넥티비티(연결성)를 구현하기 때문에 미래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현대모비스는 인포테인먼트 전문가인 바이스 상무 영입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역량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최적화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양성준 기자 ysw@

삼성전자 QLED TV, 동남아 거점 베트남 공략

런칭 이벤트 개최·신제품 대거 출시
기후·전력 등 현지 맞춤형 기능 호평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전략 요충지로 본격적인 동남아 대형 TV 시장 강화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8 삼성 QLED TV 런칭 이벤트'를 열고 QLED TV를 포함한 2018년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동남아 주요 지역 거래선과 미디어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베트남의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이 행사장에 등장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베트남 TV 시장은 2012년부터 6년 연속 2자리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역시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 전략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대형 TV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올 1분기 65인치 이상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배 성장하며 50%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형 QLED TV를 전면에 내세워 동남아 대형 TV 시장 공



삼성전자가 지난 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8 삼성 QLED TV 런칭 이벤트'를 열고 QLED TV를 포함한 2018년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사진은 베트남 현지 연예인들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오른쪽 두번째),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 김철기 상무(오른쪽 첫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략 박차에 가한다.

2018년형 QLED TV는 '컬러볼륨 100%'를 구현해 밝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인공 지능 4K Q 엔진'이 탑재돼 저해상도 영상을 4K UHD급 영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행사에서는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에도 날씨 등의 생활정보와 음악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매직스크린' 기능에 대한 현지 고객들의 반응이 뜨

거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동남아 지역 대부분이 기후 변화가 잦아 날씨를 자주 확인해야 하며 K-POP을 즐겨 듣는 고객층이 많다는 점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사정이 좋지 않거나 폭우와 낙뢰가 잦은 환경에서 TV가 고장나지 않도록 부품에 방습 처리를 하는 '트리플 프로텍션' 기능 역시 현지 맞춤형 기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은미 기자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리더사옥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KT '남북협력사업개발 TF' 신설

남북경제협력 지원·ICT 교류 확대

KT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고, 남북간 정보통신기술(ICT) 교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사업개발TF'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KT 남북협력사업개발 태스크포스(TF)는 즉각적인 업무추진과 전사적인 지원을 위해 경영기획부문장 직속의 임원급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KT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지

원과 함께 소프트웨어(SW) 개발 협력 등 ICT사업 추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협력사업개발TF는 총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대정부지원 분과'는 정부 정책 협력을 지원하고, 'BM/인프라 분과'는 남북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을 담당한다. '그룹사 분과'는 KT 남북협력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과 추진을 맡고, '지원 분과'는 협력사업에 추진되는 자원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KT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통

신지원 경험과 앞선 ICT 기술을 바탕으로 남북협력 지원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이 재개되는 즉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남북경협 참여기업들이 불편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남북간 ICT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KT-삼천리총회사(조선컴퓨터센터)와 추진했던 남북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개발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북한 IT인력 위탁교육 및 IT인력 활용 등 IT 교류사업을 남북한 당국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기 기자 silkni@